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 성향

채명옥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ubjective Health Status, Mental Health and Internet Addiction Tendency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Compared to General Families

Myung-Ock Cha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eongj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가정과 비교하여 다문화가정이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및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2017년 제 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해 복합표본분석을 하였다. 대상자는 일반가정 61,320명(98.5%), 다문화가정 956명(1.5%)이었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건강하지 못한 편, 불행한 편, 우울 경험, 자살생각, 주중과 주말 스마트폰 과의존, 친구나 선후배 관계에서 스마트폰 관련 문제적 경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 1.270배, 주중과 주말 스마트폰 과의존 각각 1.359배, 1.297배, 친구나 선후배 관계에서 스마트폰 관련 문제 경험이 1.60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인터넷 중독 성향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청소년,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인터넷 중독, 다문화가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mpact of multi-cultural family on subjective health status, mental health and internet addiction tendency compared to general family in Korean adolescent. The data were derived from the 13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7 in Korea and analyzed considering complex samples analysis. The subjects were general families 61,320(98.5%) and multi-cultural families 956(1.5%). Multi-cultural youth had higher rates of unhealthy and unhappy and the percentage of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weekday and weekend smartphone overdependence, experience problems with using smartphone in friend than general youth. In addition, suicidal ideation 1.270 times, weekday and weekend smartphone overdependence 1.359 times and 1.297 times respectively and experience problems with using smartphone in friend 1.603 times was increased in multi-cultural youth compared to general youth. Therefore, it is very meaningful that this study provided basic data of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mental health and internet addiction tendency of multi-cultural youth.

Key Words : Adolescent, Subjective health status, Mental health, Internet addiction, Multi-cultural families

*This paper was studied by the research cost of the research project (special research project) supported by the Institute of Health and Medical Science at Cheongju University in the 2018-2019 school year.

*Corresponding Author : Myung-Ock Chae (7702cmo@cju.ac.kr)

Received September 18, 2018

Revised November 19, 2018

Accepted December 20, 2018

Published December 28,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작성한 2017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9~24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0%를 차지하고 있고, 학령인구(6~21세)는 향후 10년간 약 150만 명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1]. 이에 비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16년 99,000명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하였고[1], 2017년 109,000명으로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2]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 중학생 연령인 12~14세가 23.2%, 고등학생 연령인 15~17세가 17.6%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연령이 약 41%에 달하고 있다[3].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 단계로, 아동 또는 성인의 어떤 편에도 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겪으며 심한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는 ‘질풍노도의 시기’이다[4].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과 달리 문화가 다른 부모의 양육환경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혼란과 부적응 행동의 현상인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5],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6]. 더구나,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도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영향을 주어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아동의 불안, 우울, 위축, 신체증상, 규칙위반, 공격행동의 정서행동문제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7].

이러한 영향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청소년이 되면서 그들의 건강행태, 정신건강, 인터넷 중독과 같은 행동적인 측면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건강 관련 행동양상에서 일반가정 청소년의 약물 경험률이 0.8%였던 것에 비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6.8%로 8.5배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8], 흡연, 성관계 경험과 같은 일탈행위도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경험률을 나타내고 있어[9],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일반가정 청소년과 비교해 살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일반가정 청소년의 우울 경험과 자살생각 비율이 30.6%, 16.4%였던 것에 비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각각 37.6%, 21.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8],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자신들의 학업성적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차별 등으

로 인해 친구와의 정서적 지지관계도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일반가정 청소년의 가정 폭력경험 비율은 3.1%인 것에 비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6.7%로 2배 이상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10], 다문화가정 청소년 10명 당 1명은 신체적 폭행, 협박, 따돌림 등의 폭력을 경험하며, 이러한 폭력을 경험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해 우울감과 자살생각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1] 가정 안과 밖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행복수준은 3.06점으로 일반가정 청소년 3.38점보다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2012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12.3%로 일반가정 청소년 10.6%보다 1.7%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는데[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인터넷 중독률이 높은 원인으로 방과 후 혼자 방치되는 상황과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었다[13]. 이렇듯 방과 후 방치되거나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학교 내 방과 후 교실,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지원시설 등의 다양한 지원시설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학령기 아동에서 청소년기로 성장할수록 대부분의 지원시설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었다[3].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과 우울,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인터넷 중독을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시설 프로그램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비교하는 국내학술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비교 연구[14], 비행특성에 관한 연구[15], 우울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16], 성 관련 경험 차이[17,18], 건강행태와 정신건강[8], 음주행태[18] 등이 있었는데, 대부분 단편적으로 건강 및 보건 관련 주제에 치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비교하는 융복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표본크기가 크고, 우리나라 청소년에 대한 대표성이 확보되는 자료인 제 13차 (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19] 분석을 통해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인터넷 중독 성향 차이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인터넷 중독 성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인터넷 중독 성향을 융복합적으로 비교하고자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차이를 확인한다.
- 2)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인터넷 중독 성향 차이를 파악한다.
- 3) 일반가정과 비교하여 다문화가정이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17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자료인 제 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19]를 이용한 2차 분석연구이며,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 성향을 비교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제 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19]의 목표모집단은 2017년 4월 기준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며, 층화 단계에서 39개 지역군과 학교급(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 계고)을 층화변수로 사용해 모집단을 117개 층으로 나누었다. 표본배분에서는 표본크기를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로 한 후, 17개 시·도별로 중·고등학교 각각 5개씩 우선 배분하였다. 그리고, 비례배분법을 적용해 시·도, 도시규모(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지역군, 중학교는 남·여·남녀공학, 고등학교는 남·여·남녀공학, 일반계고·특성화계고에 따라 표본학교수를 배분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집락추출법이 사용되었고, 1차 추출단위는 층별로 영구난수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2차 추출단위는 선정된 표본학교에서 학년별로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표본학급의 학생전원을 조사하였으나, 장기결석, 특수아동 및 문자해독장애 학생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원시자료의 청소년들 중 어머니 또는 아버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나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를 선별해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교(중학교, 고등학교), 거주 지역(군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경제상태, 거주형태, 학업 성적, 아르바이트 경험 변수를 사용하였다. 경제상태는 ‘상’, ‘중’, ‘하’로 분류하였고,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친척과 함께 사는 경우’, ‘하숙, 자취 및 기숙사’, ‘보육시설’로 구분하였다. 학업 성적은 ‘상’, ‘중’, ‘하’로 분류하였고, 아르바이트 경험은 유무로 구분하였다.

2.3.2 주관적 건강상태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상 시 건강상태를 ‘보통이상’, ‘건강하지 못한 편’으로 분류하였다.

2.3.3 정신건강

대상자의 정신건강은 행복감, 스트레스, 수면충족감, 우울, 자살생각 변수를 사용하였다. 평상 시 행복감은 ‘보통이상’, ‘불행한 편’으로, 평상 시 스트레스는 ‘느낌’, ‘느끼지 않음’으로, 최근 7일 동안 수면을 통해 피로를 회복한 수준에 대한 수면충족감은 ‘보통이상’, ‘불충분’으로 분류하였다.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슬픔과 절망을 경험했는지 묻는 문항을 사용한 우울과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묻는 자살생각은 경험 유무로 구분하였다.

2.3.4 인터넷 중독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성향은 스마트폰 사용, 주중과 주말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서비스 사용 목적, 스마트폰 관련 문제 경험(가족, 친구, 학업 수행) 변수를 사용하였다. 최근 30일 동안 스마트폰 사용은 유무로 분류하

였다. 주중과 주말 스마트폰 과의존은 최근 30일 동안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몇 시간 사용하는 지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한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20]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경우 1일 평균 주중 29.5회, 8.2분/회, 주말 42.9회, 10분/회로 각각 총 242분, 429분을 이용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중 242분/일 이상, 주말 429분/일 이상 사용하면 각각 주중, 주말 과의존위험군으로, 주중 242분/일 미만, 주말 429분/일 미만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로 분류하였다. 스마트폰 서비스 사용 목적은 학습, 학습 외로 구분하였고, 최근 30일 동안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 친구나 선후배, 학업 수행에 문제를 경험했는지에 대해서는 각각 유무로 분류하였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제 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19]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여 2017년 6월에 자료가 수집되었다. 조사 수행 전 표본학교의 조사지원 담당교사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 당일 표본학교 학생들은 인터넷이 가능한 학교 컴퓨터실에서 무작위로 배치된 1인 1대 컴퓨터를 사용하였고, 안내문에 인쇄되어 있는 참여번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45~50분 동안 온라인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지원 담당교사는 학생용 안내문과 동영상 상영 또는 조사지침 파워포인트 자료로 필요성 및 참여방법을 설명하고,

표본학교 담임교사 입실 불가, 학생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화면 보기 금지, 설문문항 질문에 관한 답변 금지 등 조사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제 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19]의 표본 추출은 모집단의 층화 과정 층화 변수별로 표본학교를 선정한 후, 표본학교에서 표본 학급을 추출하는 층화 2단계 집락추출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층화변수, 집락변수, 가중치를 고려해 복합표본분석(complex sample analysis)을 이용하였다. PASW 23.0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Rao-Scott χ^2 -test로 분석하였고,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인터넷 중독 성향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Rao-Scott χ^2 -test로 분석하였으며, 일반가정과 비교하여 다문화가정이 청소년의 주관적 상태, 정신건강,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차이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enera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n adolescent

Variables		Total (N=62,276, 100%)	General family (n=61,320, 98.5%) n(weighted %)	Multi-cultural family (n=956, 1.5%)	χ^2
Sex	Boy	31,624 (52.1)	31,181 (52.1)	443 (48.3)	4.78*
	Girl	30,652 (47.9)	30,139 (47.9)	513 (51.7)	
School	Middle	30,885 (45.3)	30,339 (45.2)	546 (51.3)	10.57**
	High	31,391 (54.7)	30,981 (54.8)	410 (48.7)	
Living area	Country area	3,597 (4.6)	3,472 (4.5)	125 (9.5)	13.19**
	Middle and small city	26,614 (44.0)	26,199 (44.1)	415 (42.8)	
	Big city	32,065 (51.4)	31,649 (51.4)	416 (47.6)	
Economic status	Low	8,892 (14.1)	8,629 (13.9)	263 (28.0)	72.04***
	Medium	28,582 (45.6)	28,137 (45.6)	445 (44.6)	
	High	24,802 (40.4)	24,554 (40.6)	248 (27.4)	
Living arrangement	Living with family	59,162 (95.4)	58,300 (95.5)	862 (89.9)	26.57**
	Living with relatives	496 (0.8)	476 (0.7)	20 (2.3)	
	Boarding, living in dorm	2,301 (3.4)	2,255 (3.3)	46 (4.4)	
	Living in care facility	317 (0.5)	289 (0.4)	28 (3.3)	
School achievement	Low	19,942 (32.1)	19,546 (32.0)	396 (41.7)	22.77**
	Medium	17,810 (28.7)	17,539 (28.7)	271 (27.9)	
	High	24,524 (39.2)	24,235 (39.3)	289 (30.4)	
Part time experience	No	53,872 (86.2)	53,101 (86.3)	771 (78.9)	35.54***
	Yes	8,404 (13.8)	8,219 (13.7)	185 (21.1)	

* $p < .05$, ** $p < .01$, *** $p < .001$

비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는 총 62,276명으로, 그 중 남학생이 31,624명(52.1%)이었고, 고등학생이 31,391명(54.7%)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거주가 32,065명(51.4%)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 상태는 중간정도라고 답변한 경우가 28,582명(45.6%)이었고, 거주형태는 가족과 사는 비율이 59,162명(95.4%)이었으며, 학업 성적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4,524명(39.2%)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은 없다는 응답이 53,872명(86.2%)으로 더 많았다. 가정형태는 일반가정이 61,320명(98.5%), 다문화가정은 956명(1.5%)으로 나타났고, 성별($\chi^2=4.78, p<.05$), 학교($\chi^2=10.57, p<.01$), 거주 지역($\chi^2=13.19, p<.001$), 경제 상태($\chi^2=72.04, p<.001$), 거주형태($\chi^2=26.57, p<.001$), 학업 성적($\chi^2=22.77, p<.001$), 아르바이트 경험($\chi^2=35.54,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가정 청소년의 남학생이 31,181명(52.1%), 고등학생이 30,981명(54.8%),

가족과 사는 경우가 58,300명(95.5%)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해 높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군 지역 거주가 125명(9.5%), 경제 상태가 낫다는 응답이 263명(28.0%), 학업 성적이 낮은 수준은 396명(41.7%),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가 185명(21.1%)으로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인터넷 중독 성향 수준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인터넷 중독 성향 수준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3.2.1 주관적 건강상태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주관적 건강상태($\chi^2=11.91,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Table 2. Comparison of subjective state, mental health and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ccording to general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n adolescent

Variables		Total (N=62,276, 100%)	General family (n=61,320, 98.5%) n(weighted %)	Multi-cultural family (n=956, 1.5%)	χ^2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 status	More than average	58,330 (93.5)	57,456 (93.5)	874 (90.5)	11.91**	
	Unhealthy	3,946 (6.5)	3,864 (6.5)	82 (9.5)		
Mental health						
Happiness	More than average	57,446 (92.2)	56,581 (92.2)	865 (89.6)	7.17**	
	Unhappy	4,830 (7.8)	4,739 (7.8)	91 (10.4)		
Stress	Feeling	49,530 (79.8)	48,788 (79.8)	742 (77.5)	2.62	
	Doing not feel	12,746 (20.2)	12,532 (20.2)	214 (22.5)		
Sleep	More than average	36,200 (57.4)	35,613 (57.3)	587 (59.2)	1.07	
	Insufficient	26,076 (42.6)	25,707 (42.7)	369 (40.8)		
Depression	No	46,664 (74.9)	45,980 (74.9)	684 (71.7)	4.43*	
	Yes	15,612 (25.1)	15,340 (25.1)	272 (28.3)		
Suicidal ideation	No	54,692 (87.9)	53,892 (88.0)	800 (82.9)	20.95**	
	Yes	7,584 (12.1)	7,428 (12.0)	156 (17.1)		
Internet addiction						
Using smartphone	No	7,673 (12.3)	7,511 (12.2)	162 (17.6)	20.22**	
	Yes	54,603 (87.7)	53,809 (87.8)	794 (82.4)		
Smartphone overdependence	weekday	No	49,353 (90.5)	48,668 (90.6)	685 (85.5)	17.71**
		Yes	5,250 (9.5)	5,141 (9.4)	109 (14.5)	
	weekend	No	41,117 (76.4)	40,592 (76.6)	525 (67.6)	
		Yes	13,486 (23.6)	13,217 (23.4)	269 (32.4)	
Using smartphone service	Learning	4,202 (8.2)	4,145 (8.2)	57 (7.5)	0.46	
	Except for learning	50,401 (91.8)	49,664 (91.8)	737 (92.5)		
Experience problems with using smartphone	Family	No	42,602 (77.7)	41,970 (77.7)	632 (79.2)	1.15
		Yes	12,001 (22.3)	11,839 (22.3)	162 (20.8)	
	Friend	No	52,704 (96.6)	51,954 (96.6)	750 (93.9)	
		Yes	1,899 (3.4)	1,855 (3.4)	44 (6.1)	
School performance	No	41,130 (74.2)	40,494 (74.1)	636 (78.4)	7.22**	
	Yes	13,473 (25.8)	13,315 (25.9)	158 (21.6)		

* $p <.05$, ** $p <.01$, *** $p <.001$

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건강하지 못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2명(9.5%)으로, 일반가정 청소년의 비율 3,864명(6.5%)보다 높게 나타났다.

3.2.2 정신건강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 수면충족감은 차이가 없으나 행복감($\chi^2=7.17, p<.01$), 우울($\chi^2=4.43, p<.05$), 자살생각($\chi^2=20.95, p<.001$)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 중 행복감에서 불행한 편이 91명(10.4%), 우울 경험률은 272명(28.3%), 자살생각은 156명(17.1%)으로, 일반가정 청소년 각각의 비율 4,739명(7.8%), 15,340명(25.1%), 7,428명(12.0%)보다 높게 나타났다.

3.2.3 인터넷 중독 성향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서비스, 가족과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관련 문제적 경험은 차이가 없으나 스마트폰 사용($\chi^2=20.22, p<.001$), 주중($\chi^2=17.71, p<.001$)과 주말($\chi^2=29.72, p<.001$) 스마트폰 과의존, 친구 관계($\chi^2=11.78, p<.01$)와 학업 수행 시($\chi^2=7.22, p<.01$) 스마트폰 관련 문제적 경험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 중 스마트폰 사용률은 794명(82.4%)으로 일반가정 청소년 53,809명(87.8%)에 비해 낮았으나, 주중

과 주말 스마트폰 과의존률은 109명(14.5%)과 269명(32.4%)으로, 일반가정 청소년 각각의 비율 5,141명(9.4%)과 13,217명(23.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마트폰 관련 문제 경험률은 친구나 선후배 관계의 경우 44명(6.1%)로 일반가정 청소년 1,855명(3.4%)에 비해 높았으나, 학업 수행의 경우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158명(21.6%)으로 일반가정 청소년 13,315명(25.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다문화가정이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

일반가정 청소년과 비교해 다문화가정이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정신건강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은 1.270배 높으나, 스트레스와 수면 불충족감은 .763배, .830배로 낮았다. 인터넷 중독 성향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스마트폰 사용은 .665배로 낮으나, 주중과 주말 스마트폰 과의존은 각각 1.359배, 1.29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관련 문제 경험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친구나 선후배 관계의 경우 1.603배 높으나, 학업 수행의 경우 .733배로 낮았다.

Table 3. The effect of multi-cultural family on subjective state, mental health and internet addiction tendency in Korean adolescent (N=62,276)

Variables	Univariate crude OR (95% Confidence intervals)		Adjusted OR* (95% Confidence intervals)	
	General family	Multi-cultural family	General family	Multi-cultural family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 status	1	1.518 (1.212-1.901)	1	1.242 (.989-1.559)
Mental health				
Happiness	1	1.374 (1.098-1.718)	1	1.075 (.857-1.350)
Stress	1	.764 (.663-.880)	1	.763 (.660-.882)
Sleep	1	.925 (.798-1.073)	1	.830 (.714-.965)
Depression	1	1.181 (1.013-1.377)	1	1.011 (.865-1.182)
Suicidal ideation	1	1.513 (1.277-1.793)	1	1.270 (1.066-1.514)
Internet addiction				
Using smartphone	1	.648 (.540-.776)	1	.665 (.553-.800)
Smartphone overdependence	1	1.640 (1.319-2.039)	1	1.359 (1.090-1.695)
Using smartphone service	1	1.564 (1.337-1.829)	1	1.297 (1.096-1.534)
Experience with using smartphone	1	1.101 (.829-1.463)	1	1.010 (.760-1.343)
Family problems with using smartphone	1	.910 (.765-1.083)	1	.922 (.774-1.098)
Friend	1	1.858 (1.341-2.572)	1	1.603 (1.151-2.234)
School performance	1	.790 (.663-.942)	1	.733 (.614-.875)

* Adjusting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sex, living area, economic status, living arrangement, school achievement and part time experience

4. 논의

본 연구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2017년 제 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19]를 2차 분석하여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 성향을 비교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틀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특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흡연, 음주와 같은 지위비행이 유의하게 더 높고[9], 건강행태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약물 사용 위험이 7배 정도 높았던 결과[8]로 볼 때, 이렇듯 건강에 유해한 행동을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인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건강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불행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우울 경험률과 자살생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가정의 경제 상태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는데[10],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정 경제력의 차이는 가족의 외식, 문화 활동 같은 가족 전체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10], 더 나아가 이러한 낮은 생활의 질이 주관적인 행복감에도 영향을 주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행복감이 일반가정 청소년의 행복감보다 더 낮아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군 지역 거주자가 많고,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가족의 외식과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지역적, 시간적 접근성에서 제약이 있는 것도 생활의 질과 함께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높았던 선행연구[8]와 본 연구결과가 일치하였는데,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하나가 행복감으로 나타나

연구 결과[21]를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 상태, 행복감, 우울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던 선행 연구의 결과[22]를 유추하면, 본 연구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상태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고, 불행한 편이며, 우울 경험률이 높았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해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이 자살생각 비율을 더 높게 나타내게 한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폭력 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과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탐색하는 선행 연구에서 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울감이 상승하고, 우울감이 상승하면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우울과 자살생각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예방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결과를 보면, 스트레스, 진로성숙도,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탄력성, 진로성숙도, 문화다양성 태도, 개방적 의사소통, 부모의 지지가 사회적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어[23], 다문화가정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의 환경적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 중 주중과 주말 스마트폰 과의존률과 친구나 선후배 관계에서 스마트폰 관련 문제 경험률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또래집단에 속함으로써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단짝 친구와의 우정을 통해 성인의 원만한 인간관계 기초를 확립하는데[4],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친구 수가 적고, 친구 사이에 도와주는 수준도 약하며,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는 정서적 지지관계도 서툰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또래집단이나 단짝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감소하면서,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주중과 주말 스마트폰 과의존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차별로 이어져 친구나 선후배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군 지역 거주자 비율이 높아 과외, 학원 등과 같은 학업 관련 소요시

간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문화가정 부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부모효능감을 통해 자녀의 학습케어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24]가 있으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률을 줄이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를 포함한 통합적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적인 특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성별, 거주 지역, 경제 상태, 거주형태, 학업 성적, 아르바이트 경험과 같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를 보정한 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 성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정신건강에서 자살생각, 인터넷 중독 성향에서 주중과 주말 스마트폰 과의존, 친구나 선후배 관계에서 스마트폰 관련 문제 경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살생각이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1.27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8]의 1.300배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가족 유형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살생각, 자살 시도 및 자살강도로 측정된 자살행위를 분석한 연구에서 일반가정 청소년과 비교해 볼 때, 어머니만 외국출생인 경우는 자살강도가 강하며, 아버지만 외국출생인 경우와 양부모가 외국출생인 경우는 모든 자살행위 위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25],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가족유형과 같은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중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살생각에는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단편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신체적·심리적·사회적·환경적 특성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시급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주중과 주말 스마트폰 과의존이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각각 1.359배, 1.29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복지욕구를 조사한 연구에서 외국어 교육지원, 부족한 과목 학습지도, 컴퓨터와 같은 특기교육의 교육욕구, 문화체험 프로그램, 문화시설과 같은 문화욕구, 청소년 이용시설,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등 지지 및 보호욕구, 아르바이트, 용돈 등 경제적 욕구 중에서 교육욕구와 문화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욕구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0].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가정의 경제 상태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던 바, 경제적으로 교육과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가정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를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시간을 보내면서 해소하고 있었던 결과로 주중과 주말 스마트폰 과의존이 일반가정 청소년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교육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학업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외국어나 특기 육성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체험이나 경험증진 프로그램을 교육부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학교급별 인터넷 중독 점수를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가 평균 2.04점인 것에 비해, 중학교 평균 2.13점, 고등학교 평균 2.10점으로 학령기 아동에 비해 청소년에서 점수가 높아지는 추세이고[26],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은 아니나 한국 청소년 인터넷 중독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에서 성별, 연령 등이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27],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단계적이고 차별적인 인터넷 중독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친구나 선후배 관계에서 스마트폰 관련 문제 경험률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1.60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관련 친구 또는 선후배와의 갈등은 신체적 폭행, 협박, 따돌림 등의 다양한 폭력피해로 나타날 수 있는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폭력피해경험을 살펴본 선행연구[28]에서 중학생은 1.20회, 일반계고등학생은 1.31회, 특성화 고등학생은 1.39회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폭력피해경험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다문화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점수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던 경향[26]과 종합적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 다문화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급이 높아지면 인터넷 중독 점수가 상승하면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폭력피해경험도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연령 또는 학교급별 인터넷 중독 중재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추진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인터넷 중독을 관리하고, 간접적으로 폭력을 예방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이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정서적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인터넷게임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29], 한국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의 인터넷 중독과 폭력피해경험의 관련성 및 영향을 주는 방향성을 확인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은 가족탄력성을 통해 인터넷게임중독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바[3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중재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7년 제 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19]를 이용하여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 성향을 비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 결과,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및 인터넷 중독 성향은 주관적 건강상태, 행복감, 우울, 자살생각, 스마트폰 사용, 주중과 주말 스마트폰 과의존, 친구 관계와 학업 수행 시 스마트폰 관련 문제적 경험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 가정 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 주중과 주말 스마트폰 과의존과 친구나 선후배 관계에서 스마트폰 관련 문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및 인터넷 중독 성향 차이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한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폭력피해경험 간의 관련성 및 방향성을 확인하는 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및 인터넷 중독 관련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연령이나 성별, 다문화가정 특성별로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7). *2017 Youth Statistics*.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60039.
- [2] Statistics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8). *2018 Youth Statistics*.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1/index.board?bmode=read&aSeq=367381.
- [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An Analysis of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2015*.
- [4] T. I. Kim, H. S. Kim, Y. H. Shin, M. K. Shim & W. O. Oh. (2016). *Growth Development and Health*. 3rd ed. Paju : Gyomoon Press.
- [5] S. K. Un. (2010).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chool Adjustment of Bicultural Children: Focused on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3, 37-74.
- [6] K. R. Choi & J. Y. Hong.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 The Mediating Effects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Studies on Korean Youth*, 29(1), 347-374. DOI : 10.14816/sky.2018.29.1.347
- [7] J. Y. Rhee & J. Y. Lee. (2016). The Influence of Stress for Cultural Adaptation of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on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3(2), 19-27. DOI : 10.20496/cpew.2016.3.2.19
- [8] S. Y. Yim & M. H. Park. (2014). Behaviors and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Compared to Gener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3), 1641-1651.
- [9] H. S. Kim. (2016). Differential Risks of Juvenile Delinquency Among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0(1), 41-74.
- [10] H. J. Kim & K. T. Park. (2010). A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Need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Youth : A Comparative Analysis with Normal Family Youth. *Journal of Social Science*, 49(1), 93-128.
- [11] R. H. Lee & H. L. Chang. (2017). Relationship between Violence Victimizat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s of Happiness and

- Depression. *Journal of Youth Welfare*, 19(3), 109-132.
DOI : 10.19034/KAYW.2017.19.3.05
- [12]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2). *Internet addiction survey in 2012*.
- [13] C. H. Lee & S. K. Han. (2011). Mentor's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s Game Addiction of Stud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7(4), 291-312.
- [14] K. S. Jun. (2008).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Teenagers from Multicultural Family and Normal Family in Gyeonggi Prefecture-Based on School Life and Family Lif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6(1), 167-185.
- [15] S. H. Park & Y. S. Jeon. (2017). Moderators of the Effects of Delinquent Factors on Delinquency for Multi-Cultural Youth in South Korea.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1(3), 55-76.
- [16] J. H. Yu & S. Y. Hwang. (2016).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 Comparison with Those from General Families. *Social Work Practice & Research*, 13(1), 115-146.
- [17] S. J. Nam. (2015). Differences in Sexual Experiences between General and Multi-cultural Adolescents : Verifying Regulation Effects of Fathers' Education and Sex Education.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7(1), 1-12.
DOI : 10.19031/jkheea.2015.03.27.1.1
- [18] S. H. Lee, J. H. Yoo, M. E. Yun & S. S. Chun. (2015). Correlate of the Drinking Behavior and Sexual Experience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and General Family Adolesc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16(2), 45-57.
- [19]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 *The 13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 [20]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7). *The Survey on Smart Phone Overdependence*.
- [21] J. H. Yu & S. Y. Hwang. (2016).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 Comparison with Those from General Families. *Social Work Practice & Research*, 13(1), 115-146.
- [22] G. Y. Park, Y. R. Che & B. R. Kim. (2013). The Analysis of Risk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in a Multicultural Family - Based on the 2012 Korean Youth Heal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7(1), 155-165.
DOI : 10.12811/kshsm.2013.7.1.155
- [23] M. K. Kim. (2018). A Convergent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s' Mental Health of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189-197.
DOI : 10.15207/JKCS.2018.9.1.189
- [24] O. S. Cho & H. S. Bang. (2018). The Effects of Daily Life Stress on the Learning Care Style of Multicultural Parents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Parent Efficac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4), 173-180.
DOI : 10.22156/CS4SMB.2018.8.4.173
- [25] H. S. Kim & D. S. Kim. (2014).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Differential Risks of Suicidal Behavior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8(2), 35-66.
- [26] R. H. Lee & H. L. Chang. (2018). The Influences of Closeness with Parents and Awareness of Internet Policies on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3), 13-25.
DOI : 10.14400/JDC.2018.16.3.013
- [27] J. M. Park, M. W. Kim, E. K. Kim & H. Y. Kim. (2012). Related Factors of Internet Addiction of Korean Adolescence: Using the 5th Korean Youth Health Behavior Surve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4), 2067-2080.
- [28] G. Y. Lee & D. Y. Lee. (2017). Influencing Factors on Violent Victimization Experiences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3(6(B)), 453-469.
DOI : 10.24159/joec.2017.23.6.453
- [29] J. Y. Kim, A. Y. Song & J. H. Lee. (2008). A Study of Victimization from School Violence, Adolescent Internet Game Addiction and Mental Health. *Mental Health & Social Work*, 29, 150-176.
- [30] M. K. Kim. (2016). Relationship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tress, Depression, Family Resilience and Internet Game Addi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1), 205-210.
DOI : 10.15207/JKCS.2016.7.1.205

채 명 옥(Chae, Myung Ock)

[정회원]



- 199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
과학과 (간호학사)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
과학과 (간호학석사)
- 201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
과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의 안전, 성장발달, 시뮬레이션교육
- E-Mail : 7702cmo@cju.ac.kr